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성 명 및 직 위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출장기간	2019. 10. 8. (화) - 2019. 10. 12.(토) [3박 5일]		
출장지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목적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경비부담	본원 부담 (₩ 6,196,000)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개최</li> <li>• 국제학술회의 참석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li> <li>• 스톡홀름 소재 여성평화안보기관(SIPRI) 방문 및 향후 협력기반 구축</li> </ul>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I)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스웨덴 출장

## 출장 복명서

2019. 11.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 기간: 2019. 10. 8(화) - 10. 12.(토) [3박 5일]
- 장소: 스웨덴 스톡홀름
- 출장자 및 역할: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lt;출장자 역할 분담표&gt;

	이름	역할
1	장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술회의 환영사 및 제 1세션 발표</li> <li>- KWDI - ISDP 국제학술회의 개최 총괄</li> <li>- KWDI-ISDP 업무협력 간담회 총괄</li> <li>- 스웨덴 내 양성평등 관련 기관방문 총괄</li> </ul>
2	박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술회의 폐회사</li> <li>-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주무</li> <li>- KWDI-ISDP 업무협력 간담회 진행</li> <li>- 스웨덴 내 양성평등 관련 기관방문 진행</li> <li>-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li> </ul>

## □ 출장배경:

가. 정책연구실 평등문화교육센터는 비핵화의 실현과 대북제재의 완화, 북한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여성들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연구로 「북한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I)」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2인(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가하고 있음.

나. 한반도는 2018년도부터 비핵화 촉진,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함. 특히, 국경 지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경제사업이 현재 주요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구축과정과 남북협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협상에서도 주요 논의 의제가 되지 못함. 많은 연구자들은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평화협정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의제의 포괄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만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출장은 「북한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I)」의 일환으로, 본원의 MOU 체결 기관인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럽

과 아시아에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한국, 아시아, 유럽 간 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여성의 경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고자 함.

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싱크탱크로서, 2018년 5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소 내 ‘스톡홀름 코리아센터’가 개소함.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이전부터 북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안보, 핵 등의 이슈에 대한 훈련 및 공동연구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본원과는 2018년 10월 남북한 공동초청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본원의 전문가(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를 초청하여 1개월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양 기관 간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출장목적:

가. ISDP와의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유럽, 아시아, 동유럽 국가들과의 젠더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스톡홀름 소재 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관방문을 통해 협력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본원의 국제협력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향후 협력기반을 구축함.

##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10/8 (화)	○ 전원 출국: 본원 연구진(총 2인) (AY 042 인천 10:20 → 스톡홀름 16:00, 12시간 40분 소요, 헬싱키 경유)	인천 → 스톡홀름
10/9 (수)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기관방문 (11:00) ○ KWDI - ISDP 업무협력 회의 (16:00) ○ 국제학술회의 환영만찬 참석 (18:00)	스톡홀름
10/10 (목)	○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참석 (9:00 ~ 16:00) ○ 공식 만찬 참석 (18:00 ~ 20:00)	스톡홀름
10/11 (금)	○ 전원 귀국 (AY808 스톡홀름 12:55 → 인천 8:20+1일, 10/12(토) 인천 도착)	스톡홀름 → 인천

## 1.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기관 방문

□ 일시: 2019. 10. 9(수), 11:00~12:30

###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SIPRI 참가자: Marina Caparini(거버넌스 및 사회프로그램 국장),  
Jose Francisco Alvarado Cobar(연구원)

### □ 주요내용

- 본원 소개 및 연구사업 설명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SIPRI 연구사업 및 활동 설명 (Marina Caparini 국장)
  - SIPRI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주요 연구분야가 있음 ①군비 및 군비축소 (armament and disarmament) ②갈등 및 평화안보(conflict, peace and security) ③ 평화와 발전(peace and development)
  - SIPRI는 현재 위 세 개의 주요분야에서 젠더이슈를 주류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료 및 젠더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11월 28일 스톡홀름에서 SIPRI와 이슬람교 국제구호 활동기구인 Islamic Relief Worldwide(이하 IRW)와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 예정임. IRW 외에도 국제구조 위원회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와 노르웨이 난민 협의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참가 예정임. IRC와 NRC는 스웨덴국제협력단(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의 초청을 받아 동 세미나에 참가하게 됨. SIDA는 모든 참가 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모든 사업에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며 관련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
  - \*트리플 넥서스: 인도주의, 개발, 및 평화 관계자 간의 상호협력
  - 첫 번째 오전 세션은 전체공개 세션으로 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후 세션은 비공개 세션으로 SIPRI, IRW, IRC, NRC, SIDA 관계자들이 모여 트리플 넥서스 프로그램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진행중인 SIPRI 젠더연구 설명 (Jose Francisco Alvarado Cobar 연구원)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수행중에 있음. 한국과 일본을 신흥 원조국으로 보며 두 국가가 평화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자 함
  - 대부분의 평화안보 연구는 유럽 국가에만 집중하고 있어, SIPRI는 이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대표 원조국인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을 비교분석 하고자 함
  - 한국과 일본은 개발 분야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임. 교육 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았음. 특히 여아 교육에 집중하는 면을 보임
  - 작년에 서울과 도쿄에서 정부 및 NGO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50페이지 정도의 짧은 연구로 11월 발간 예정이며, 향후 후속연구를 계획 중임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기관방문 사진

## 2. KWDI - ISDP 업무협력 회의

□ 일시: 2019. 10. 9(수), 16:00~17:30

###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박윤정 연구원
- ISDP 참가자: 이상수(ISDP 한국센터장)

### □ 주요내용

-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관련 논의
  - 국제학술회의 기획 의도 및 구성 설명
  - 홍보: ISDP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중, 동 회의 주제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초청함. 15~20여 명의 외부 참가자 참석 예정
  - 해외 참가자 로지스틱스 현황 공유:
    - ①현재까지 해외 참가자 스톡홀름 도착 상황 (항공 및 숙박 진행상황)
    - ②일비 및 식비 지급 방법(송금)
  - 홍보자료 배치: 회의장 내 본원 및 ISDP 홍보자료 배치용 테이블 2개 설치 (본원 영문 브로셔 및 연간보고서 배치 예정)
  - 기념품: 우산 (발표/토론자 및 참가자 자리에 배치)
  - 회의 이후 최종 발표자료 수합 후 자료집 제작 (본원에 PDF파일로 송부 예정)
  - 회의 요약본 작성: ISDP측 인턴 (영문을 작성 후 향후 본원에서 국문 번역)
  - 환영만찬 참가 인원 확인



KWDI - ISDP 업무협력 회의 및 환영만찬 사진

### 3. 국제회의의 공식 만찬 및 ISDP 소장과의 업무 협력 간담회

□ 일시: 2019. 10. 10(목), 18:00~20:00

□ 참가자

○ 동 국제회의의 참가자 전원

□ 주요내용

○ 동 국제회의의 후속 조치 논의

- ISDP는 향후에도 여성관련 의제로 다양한 국제 연구 및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 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젠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함.
- 동 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이러한 형식과 주제의 국제회의의 개최에 대해 창의적이고도 필요한 이니셔티브라고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북유럽, 동유럽, 아시아의 여성과 평화, 그리고 여성과 지속가능개발 아젠다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 제안에 적극 찬성함.

○ ISDP와 KWDI 향후 협력 방안 논의 (ISDP 소장과의 간담회)

- 전통적 안보 이슈만 다루었던 ISDP가 KWDI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젠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제고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음. 스웨덴 정부도 안보 이슈에 젠더를 통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데, KWDI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공식 만찬 및 ISDP 소장과의 업무 협력 간담회

3

###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 일시: 2019. 10. 10.(목), 09:30~16:00

□ 세부일정

일시	구분
10.9.(수)	참가자 도착 및 환영만찬
10.10.(목)	9:30~9:40 환영사 - Niklas Swanstrom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장) - 장은하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9:40~10:00 기조연설 - 여성의 초국가적인 의사소통, 협력 및 지원 Dusica Ristivojevic, 중국-노르딕 젠더연구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헬싱키대학교 -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촉진: 북유럽의 관점으로 Elisa Tarnaala, 위기관리이니셔티브(Crisis Management Initiative, CMI)
	10:00~11:00 세션1: 평화로운 발전 및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사회: Elisa Tarnaala - “남북평화 프로세스 구축과 여성의 역할”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평화로운 개발과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베트남 사례” Le Thi Han Huong, 베트남국립경제대학
	11:00~11:20 휴식
	11:20~12:20 세션1 계속: - “북아일랜드 평화구축과 여성의 역할”

		Linda Holmgren, 북아일랜드 울스터대학 - 토론
	12:20-13:30	오찬
	13:30-15:00	세션2: 경제발전 및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사회: :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베트남의 경제개발과 여성의 역할” Tran Thi Van Hoa, 베트남국립경제대학 - “동유럽과 동아시아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Joerg Baten, 독일 튀빙겐 대학교 - 토론
	15:00-15:30	폐회사 - Alec Forss (ISDP 연구원) - 박윤정 (본원 연구원)
	19:00	만찬

## 기조연설 2019 KWDI - 스웨덴 ISDP 국제학술회의

□ 두시차 리스토보예비치(Dusica Ristivojevic) 박사는 '여성의 초국가적인 의사소통, 협력 및 지원'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함. 리스토보예비치 박사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중국-북유럽 젠더연구 네트워크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과 어떻게 초국가적인 의사소통, 지원,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지 소개함. 또한 공산당과 시민사회의 중국 페미니스트를 모아서 진행한 베이징 워크숍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의 평화구축 토론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함을 강조함. 첫 번째는, 오늘날 디지털화되고 급진주의적인 환경에서는 제도적 권한 위임이 중요하다는 것임. 두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기 반영성(self-reflexivity)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이념적,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의 반영과 이에 대한 재평가가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임을 제시함. 리스토보예비치 박사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함.

□ 이어서 엘리사 타르나알라(Elisa Tarnaala) 박사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촉진: 북유럽의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함. 타르나알라 박사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위기관리 이니셔티브(Crisis Management Initiative, CMI)의 역할과 CMI가 북유럽의 평화구축 모델에 기여한 점을 강조함. CMI는 핀란드의 전 대통령인 마르티 아티사리(Marti Ahtisaari)가 2000년도에 설립하였으며,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음. 타르나알라 박사는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계층과 모든 평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북유럽의 기본 이념이며, 이상이라고 소개함. 특히, 분쟁 이후 평화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CMI는 남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등 많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유엔 중재자(UN mediators)들을 대상으로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함.

타르나알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함. 첫째,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여전히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점. 둘째,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타르나알라 박사는 이 의제를 시행하는 것은 평등을 향하는 것이 아닌, 세계 평화와 안보를 향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함.

## 세션 1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 첫 번째 세션인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제는 안나 위슬랜더(Anna Wieslander)가 소개를 하고 엘리사 타르나알라(Elisa Tarnaala) 박사가 사회를 맡음. 본 세션에서는 분쟁과 평화구축 과정을 젠더 측면에서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젠더 문제를 포함하여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 장은하 박사는 '남북 평화협력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함. 장은하 박사는 현재 한반도의 잠재적 평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함. 평화협상 테이블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대변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은하 박사는 과거 남북 여성 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특징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협력을 위한 잠재적 아젠다를 도출하였으며, 여성의 참여가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장은하 박사는 연구를 통해, 1990년 초, 남북 간 여성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이후, 2000년대 초반, 남북 여성 회담의 개최되는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교류와 통일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함. 그러나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면서 2005년경에 남북 교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교류가 갑자기 중단됨. 그 이후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간헐적인 교류만이 이루어짐.

□ 이어 장은하 박사는 과거 남북 여성들 간의 교류와 한계점을 소개함. 남북의 여성들이 통일 담론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의제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하였지만, 그들의 교류는 정치와 안보에 따라 좌우되었으며, 또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이해가 늘었으나, 논의 의제가 매우 제한되고 대부분 남한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임. 이에 장은하 박사는 미래를 위한 평화 과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상호 간의 이해 및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소개함.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다자지원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UNSCR 1325)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의 중요성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장은하 박사는 '제 3자의 개입'이 남북 간의 갑작스러운 안보 및 정치적 변화의 영향



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교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 두 번째 발표는 '**평화로운 개발과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베트남 사례**'라는 주제로 **르티한 호영(Le Thi Han Huong)** 박사가 발제함. 호영 박사는 정부기관, 해외 취업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의 통계를 소개함.

□ 호영 박사는 베트남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베트남 경제가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하노이의 경제사회 개발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온 이유를 설명함. 호영 박사는 베트남 여성의 주요 특징을 영웅주의, 결단력, 충실함, 그리고 지략이라고 묘사하였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s Women Union)을 포함한 많은 여성단체와 연합들이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을 보여줌. 더불어, 베트남 여성들의 도전과제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부족을 지적하였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개인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에는 여전히 사회적 부담감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부각함. 또한, 베트남은 가부장적 사회로 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정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함.

□ **린다 홀그렌(Linda Holmgren)**은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발표는 북아일랜드와 남부 아일랜드 간의 갈등을 소개로 시작함.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크게는 국가의 정체성, 즉 연방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 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함. 전통적으로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은 하위계층(사회적 약자)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광범위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지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하며 아일랜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함. 가톨릭계 여성들은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국왕파 여성들은 감시자와 같이 소극적인 역할을 했음. 여성들은 북아일랜드 시민권 연합체(Northern Ireland Civil Rights Association, NIRCA) 설립과 같이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는 결국 남성들의 공으로 인정됨. 홀그렌은 여성들이 평화 구축과정에 기여한 협력 활동의 여러 예를 소개하며, 특히 여성의 완전한 평등, 정치 참여권을 추진한 북아일랜드 여성 연합체(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의 역할을 강조함.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UNSCR 1325)와 관련하여,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문제를 무력충돌로 간주하지 않아, 국가행동계획(NAP)은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낙태는 북아일랜드에서 여전히 불법이며, 아일랜드 정부의 중앙 통제력이 약해, 이는 아일랜드는 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더불어, 북아일랜드 여성들은 △복지 개혁을 위한 협상 부족, △BREXIT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소득수준 하락 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아일랜드의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미래가 긍정적이지 보이지는 않음을 시사함. 홀그렌은 자신의 발표에서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성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서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교훈과 미래 전망 에 대한 주제로 원탁토의(roundtable discussion)가 진행됨. 구체적으로 아일랜드 분쟁에서 여성 단체들 간의 협력, 한국 정부에서의 여성의 참여, 그리고 여성들이 평화 구축과정에서 가장 현장 경험이 많은 진정한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음.

## 세션 2 지속가능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

□ 두번째 세션은 **장은하 박사가 사회를 맡았고 ‘지속가능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짐.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국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젠더와 지속가능한발전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됨.

□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경제개발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트란 티 반 호아(Tran Thi Van Hoa)** 박사가 발표함. 농업, 교육, 보건 의료, 산업, 가족사업 등 베트남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몇몇 핵심 지표들을 통해 소개함. 정부기관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베트남은 OECD 국가들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 여성 사업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게다가 여성들은 가정의 주요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5%를 넘었고, 여성이 소유한 중소기업은 남성소유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 사회개발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은 성평등지수에서 67위를 기록함. 여성 소유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일자 창출 이외에도, 사회복지 정책도 실행하고 있으며, 유급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도 남성 소유의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베트남이 양성평등을 이행하는데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남녀간 임금격차, 가정폭력, 그리고 여성들이 현재 주로 겪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함.

□ 이어서 **조어 바텐(Joerg Baten)** 박사가 '**동유럽과 동아시아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여기서 바텐 박사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여성의 역할을 소개함. 바텐 박사는 성평등이 개발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개발이 성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발표함. 그는 성평등이 단지 개발의 부산물이 아닌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바텐 박사는 개발은 경제 모델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외부 세력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에 의존한다는 연구를 소개함.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연구는 개혁 이전의 중국으로, 1980년대까지 중국의 성 불평등의 역사를 살펴본 연구임. 중국은 부계사회의 영향으로 성불평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강조함. 개혁 이전 기간에 일부 양성평등 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중국의 대약진 정책 기간(Great Leap Forward) 동안, 많은 소녀들은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양분 섭취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

여중. 더불어 바텐 박사는 '키'를 성별 불평등의 지표로 삼는 개념을 소개함. 이런 종류의 측정은 두 성별에 균등하게 영양분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확인할 수 있음. 영양분 공급에 대한 지표로 키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를 통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대부분의 나라가 평등을 측정하는 변수로 '기대수명'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정부의 통계 자료 조작으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함. 바텐 박사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대수명과 불평등, 키와 불평등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중국, 한국, 대만은 30년대 이후 키의 불평등이 극적으로 감소했으나, 70년대에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함. 또한, 바텐 박사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매우 혼재된 결과를 보임. 교육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로 인해, 개발이 항상 동등한 수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함. 바텐 박사는 결론적으로 사회주의가 더 나은 성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성평등 그 자체가 미래에 더 나은 성평등을 이루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바텐 박사의 발표에 이어 **'젠더,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연동 및 정책 과정'**이라는 주제로 원탁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역할, 노동인구에서 여성의 역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교육이 여성 가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제들이 다루어짐.
- 폐회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윤정 연구원과 ISDP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알렉 포르스(Alec Forss)는 젠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함.